



설날의 세시풍속



강 욱

자유기고가

음력 정월 초하루는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설날이다. 한자어로는 한 해의 첫 날이라는 뜻을 지닌 원단(元旦)·원일(元日)·신원(新元)·세수(歲首)·연수(年首)라고 한다. 또한 조심·근신하는 날이라 해서 신일(愼日)이라고도 쓴다.

설날의 유래는 확실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 다만 설 명절을 비롯하여 우리의 세시풍속에 대해 기록된 가장 오래된 문헌으로 3세기에 중국의 사가(史家) 진수(陳壽)가 쓴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이 있다. 그 기록에는 고대 부족국가의 제천의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를 세시풍속의 원류로 보고 있는 것이다. 제천의례는 해마다 같은 시기에 주기적으로 행해졌는데, 그 때에는 하늘에 제사지내고 음주가무하며 국중대회(國中大會)를 했다고 소개되어 있다.

음력 정월은 한 해가 시작되는 날이다. 그러면서 해가 바뀌면서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빌고 조상이나 어른, 또는 이웃끼리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의미에서 여러 가지 행사와 놀이가 많았다. 정월 한 달 동안 끊임없이 놀이가 계속되었는데 특히 ‘선보름’이라 하여 1일에서 15일까지에 집중적으로 놀이가 성행했다.

설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새로 지은 옷을 입는데 이 옷을 ‘설빔’ 또는 ‘설비움’이라고도 한다. 설빔을 마련하기 위해 각 가정에서는 가을부터 옷감을 준비했다가 미리 정성껏 옷을 장만해 둔다. 특히 어린이는 색동저고리를 입는데 이것



을 ‘까치저고리’ 라고 한다. 옛날에 어른들은 두루마기 도포를 비롯하여 버선, 대님, 행전까지 한 벌을 하며 바지저고리에는 새 솜을 두어 엄동설한에도 추위를 모르게 하였다. 이렇게 온 집안 식구가 설빔으로 갈아입은 다음 차례에 들어간다.

새해 첫날을 여는 설날의 세시풍속으로 대표적인 것은 차례(茶禮)와 세배다. 아침 일찍 깨끗한 설빔으로 갈아입고 세찬을 차려 조상에게 제사지내는 것을 차례라 하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차사(茶祀)라고도 한다. 차례는 4대조, 즉 아버지 내외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내외까지만 지낸다. 차례는 사당문을 열고 신주를 모셔다가 지내거나, 신주가 없는 집은 지방(紙榜)을 써서 붙이고 지낸다.

차례가 끝난 다음에 음복(飮福)이라 하여 제사에 쓴 술이나 다른 음식을 제관들이 그 자리에서 나누어 먹는다. 이렇게 돌아가신 조상과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는 것은 훌륭한 조상의 덕을 이어받는 것이며, 평소에 흠어졌던 마음을 제사를 통해서 자손들이 다 한 마음으로 통하게 했던 것이다.

특히 정월 차례 뒤에는 도소주(屠蘇酒)를 마신다. 도소주는 술에 산초(山椒), 방풍(防風), 백출(白朮), 밀감피(蜜柑皮), 육계피(肉桂皮) 등을 조합하여 만드는데, 이것을 마시면 일년 동안의 사기(邪氣)를 없애고 오래 산다는 전설에서 유래된 풍속이다.

차례가 돌아가신 조상에게 드리는 새해 인사라면 세배는 생존해 계신 어른에게 올리는 새해 인사다. 세배는 웃어른뿐만 아니라 부부지간·형제지간에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집안에서 세배가 끝나면 이웃의 가까이 지내는 어른에게도 세배를 한다.

세배를 할 때에는 좋은 말로 인사를 주고받는데 그 말을 덕담(德談)이라고 한다. 어른께 “새해에 더욱 건강 하십시오”, “새해에는 백세향수(百歲享壽) 하십시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등의 덕담으로 절이 끝난 다음 인사를 드리면, 세배 받은 어른도 세배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응분의 인사말을 한다. “금년에는 소원 성취하게” 또는 “금년에는 장가가고 복 많이 받게” 등으로 인사에 답한다.

세배가 끝나면 세찬(歲饌)을 먹는다. 세찬은 떡국을 비롯하여 수정과·편육·약식·강정 등 설 명절을 위해 새로 마련한 음식을 일컫는다. 세찬의 대표적인 음식은 떡국이다. 떡국 한 그릇을 먹으면 나이 한 살을 더 먹은 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떡국은 새해 들어 나이를 먹게 하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떡국은 멍쌀로 빳은 흰떡으로 만드는데, 칼로 얇게 썰어 쇠고기나 닭고기 국물에 넣어 끓인다. 원래는 꿩고기 국으로 끓이는 것이었으나, 꿩을 구하기가 힘들어 대신 닭고기나 쇠고기를 쓰기도 한다. 속담에 ‘꿩 대신 닭’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나온 말이다.

정초에는 제액(除厄)을 위한 여러 가지 세시 풍속이 있다. 각 가정에서는 세화(歲畵)라 하여 대문에 용, 호랑이, 닭을 그려 붙여 액이 물러가기를 빌었고, 삼재(三災)를 면하기 위한 부적을 붙였다. 닭은 새벽 밝음을 알리는 동물이며, 호랑이와 용은 두려움과 공경의 대상으로 이들을 통해 액막이를 한 것이다.

정월 초하루 밤에는 야광귀(夜光鬼)라는 귀신이 집을 찾아와 신발을 신어보고 맞으면 신고 간다하여 신발을 감춰 놓고 잤다. 신발을 잃은 사람에게 불행이 닥쳐온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정월 열 엿새를 귀신날이라 하여 이 날 신발을 얹어놓으며 방액하는 풍속이 있다.

정초에 즐기는 세시 놀이로는 윷놀이, 널뛰기, 연날리기, 돈치기, 제기차기, 쥐불놀이, 햇불싸움, 다리밟기, 줄다리기, 고싸움, 지신밟기등 수도 없이 많다. 여기에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여 겨울 추위를 극복하고 또 즐거움을 찾게되는 놀이 성격임을 알 수 있다.

윷놀이는 설날의 정취를 잘 나타내는 놀이로써, 빈부귀천이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널리 즐겼다. 윷놀이는 척사(擲柶)라고도 한다. 윷은 주로 박달나무, 또는 싸리나 그 밖의 단단한 나무로 만들며 채윷이라고도 하는 장작윷과 밤윷의 두 종류가 있다.

널뛰기는 여자들의 놀이로 짚단이나 가마니를 받침으로 하여 길다란 널판지를 놓고, 양끝에 한사람씩 올라가서 한쪽에서 힘껏 내리 디디면 한쪽에서 높이 솟아오른다. 원색의 설빔으로 곱게 단장하고 널을 뛰는 모습은 활기가 넘친다. 나부끼는 웃고름과 치마 자락이 그림과도 같이 아름답다.

연날리기는 남자들이 즐기는 놀이다. 연날리기는 선달그믐에도 하지만 본격적으로 연을 날리는 때는 정초부터 보름까지이다. 특히 정월 보름날에는 액막이라고 해서 소년과 청년들이 연날리기를 많이 한다. 액막이는 그 해의 재앙을 멀리 쫓아버



린다는 것으로 연 꼬리에 ‘송액(送厄)’이나 ‘송액영복(送厄迎福)’이라는 등의 글자를 쓴다. 연(鰲)이 높이 날아올랐을 때 연 실에 불을 붙여 실을 끊어 연을 멀리 날려 보냈다.

설날의 하루 전인 음력 선달그믐을 ‘까치 설’이라 부른다. 이 ‘까치 설’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 까치설이 무엇인가를 아는 데는 ‘까치밥’이라는 것을 먼저 설명하면 도움이 된다. 늦가을 감나무에 매달린 잘 익은 감을 딸 때, 너댓개를 남겨놓는 관습이 있다. 이것을 까치밥이라 하는데 실상은 까치가 먹는 것은 아니다. 대자연의 고마움을 아는 인간의 아리따운 마음씨일 뿐이다. 🐣

